

사순절 세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IN LENT

주후 2020년 3월 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 21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 번 시편(Psalm) 2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5:1-10	윤홍준 집사
설 교 Sermon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He Learned Obedience And Made Perfec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455)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 53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었고, 우리의 말은 진실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5: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한글개역 **히 5:8-9**)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NIV Hebrews 5:8-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5 (주일)	3/16 (월)	3/17 (화)	3/18 (수)	3/19 (목)	3/20 (금)	3/21 (토)
	출27	출28	출29	출30	출31	출32	출33
본문	요6 잠3 갈2	요7 잠4 갈3	요8 잠5 갈4	요9 잠6 갈5	요10 잠7 갈6	요11 잠8 엡1	요12 잠9 엡2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3/18 오후7:30)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좇아” (민 9:15-23)
토요 새벽기도회 (3/21 오전6:30)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 11:1-4)

지난 주일(3/8)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히 4:12-16)

한자로 충성 忠(충)자를 분석해보면, 하나(一)의 중심(中)으로 사는 마음(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충성 忠(충)자와 비슷한 근심 患(환)자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중심(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중심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근심과 우환이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중심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참고, 히4:14)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란 문자적으로 ‘동일한(똑같은) 말을 하다’ 즉, ‘신앙고백(Confession)’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첫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살아있다(생명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찌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2)둘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며, 3)셋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